

60세 이상의 악성 종양 환자에서 항암 화학 요법 전 후 부신 기능저하증 빈도 및 양상에 관한 전향적 연구: 예비 연구 결과

영남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성우, 김민경, 이경희, 고성애, 손세훈, 김동근, 김명진, 장효진, 현명수

서론: 부신 기능저하증의 원인은 감염과 약물, 부신의 출혈과 악성 종양의 부신으로의 전이와 같은 일차성 손상이 있고 뇌하수체 또는 시상하부의 이상 및 외부에서 스테로이드의 복용 과 같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체계의 이차적 손상이 있다. 임상에서 악성 종양 환자들이 부신 기능저하증을 진단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실제 빈도와 원인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연구 목적:** 고령의 암 환자 중 항암 치료를 시행 받는 60세 이상의 환자에서 부신 기능저하 빈도와 정도, 그리고 위험 요인 및 그 환자들의 예후에 관해 전향적으로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환자:** 항암 화학 요법을 계획 중인 6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전에 부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은 병력 및 기대 여명이 6개월 이하인 환자는 제외 하였다. **결과:** 영남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2011.3월부터 악성 종양을 진단 받고 처음 항암요법을 시작하는 6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rapid ACTH stimulation test(basal, 30분 후, 60분 후 serum cortisol 및 ACTH), 24hr urine cortisol를 시행하였다. 항암 치료 시작 직전, 3개월, 6개월 째의 serum ACTH, serum Cortisol의 level을 전향적으로 추적 하여 함암 치료 전과 치료 중에 부신 기능의 저하 빈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1년 7월까지 총 39명의 환자가 등록되었고 13명의 환자는 3개월 후의 추적 검사까지 확보하였다. 환자의 나이는 60-85세 (평균:69세) 성별은 남자 22명, 여자 17명이었고 혈액암 6명, 두경부암 4명 호흡기계 암 4명 소화기계 암 13명 유방암 2명 난소암 2명 비뇨기계 암 4명 흑색종 1명 육종 1명 불명암 2명으로 다양하였다. serum ACTH의 평균 수치는 12.96mcg/dL (표준편차:5.6) serum Cortisol의 평균 수치는 13.45mcg/dL (표준 편차:6.74)로 확인 되었으며 진단 당시 serum basal cortisol 10 이하의 환자 수는 7명으로 부신 기능저하를 의심할 수 있었고 진단 당시 serum basal cortisol level 이 정상 범위였다가 3개월 후 serum basal cortisol 이 10 이하로 감소된 환자 수는 5명이었다. **고찰:** 항암 화학 요법을 처음 투여 받는 60세 이상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부신기능 저하증의 빈도와 원인 등을 전향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실제 부신 기능저하증의 빈도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전 관해된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환자에서 이차암으로 발생한 결절성 변연부 B 세포 림프종 1 예

울지외과대학교 내과학교실

*이지현, 공수정, 이정애, 김내유

서론: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이하 DLBCL)은 치료 직후 2년내에 재발이 흔해 치료 종료 5년까지의 추적관찰을 요하며 5년 완전 관해 이후의 재발은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국인에서 타장기 침범 없이 림프절에서 발병한 결절성 변연부 B 세포 림프종(Nodal marginal zone B cell lymphoma, 이하 NMZL)은 전체 비호지킨 림프종의 0.6%를 차지하는 드문 림프종이다. 저자들은 2004년 DLBCL을 진단받고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완전 관해로 경과 관찰하던 중 2010년 우측 경부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NMZL로 진단된,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 후 드문 아형(subtype)의 림프종으로 발생한 이차암 (Second primary cancer) 환자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2010년 6월, 68세 남자 환자가 약 1개월 전부터 시작된 압통을 동반하지 않은 우측 경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2004년 12월, 점진적인 호흡 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여 DLBCL 진단받고 2005년 6월까지 6회 RCHOP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다. 그 후 주기적으로 컴퓨터 단층촬영 및 PET-CT를 시행 받았고 완전 관해 되었다. 우측 경부 종괴는 재발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미만성으로 작은 림프구의 침윤 소견이 보이고 CD20(+), CD3(-), CyclinD1(-) 및 Ki-67에 중등도 양성 (20%)이 관찰되어 MZL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컴퓨터 단층촬영 및 PET-CT를 시행 받았으며, 다른 고형장기의 침범 없이 림프절만 침범한 소견이 보여 NMZL로 진단되었고, 6회 IMEP (Ifosfamide/Methotrexate/Etoposide/Prednisone) 화학화학요법 시행 받은 후 현재까지 완전 관해를 보이고 있다. **결론:**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 후 이차암 발생율은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 1.32-8.77%이며, 이중 대부분은 폐암, 유방암과 같은 고형암이며, 이차암으로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생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NMZL은 MALT 림프종 중 림프절외 (extranodal) 병변 없이 림프절 침범을 주증상으로 하는 드문 질환으로, NMZL에서는 치료 후 추적 관찰중에 DLBCL로의 조직학적 변환 (histologic transformation)을 보이기도 하지만 본 증례에서처럼 완전 관해된 DLBCL에서 NMZL의 발생은 보고 된 적이 없다. 최초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시 진행된 병기가 이차암 발생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생각되고 있어, 고위험군에서는 5년 추적 관찰 후에도 재발 및 이차암 발생 가능성에 주의 깊은 관찰을 요한다. 저자들은 완전 관해된 비호지킨 림프종에서 다른 아형의 비호지킨 림프종으로의 이차암 발생 환자의 드문 예를 경험하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